6강 여성 작가들을 만나

1. 가문의 이름으로-반소

동한의 반소班昭(49?-120?)
-아버지는 반표班彪, 오빠는 반고班固와 반초班超

『후한서』「열녀전列女傳」
-14살에 조세숙曹世叔과 혼인. 어려서 『시경』과 『논어』를 모두 익히는 등, 재능이 뛰어났고 글도 잘 썼음. 아버지 반표의 영향. 반표는 난대蘭臺에서 역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큰 아들인 반고가 그 작업을 계속 함.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반고가 『한서』를 마무리 하지 못함. 8표表와 천문지天文志를 완성하지 못했던 것. 반소는 황제의 명으로 반고의 뒤를 이어 『한서』를 완성하는 작업을 맡게 됨. 화제和帝는 반소에게 동관東觀의 장서각藏書閣에 머물면서 작업을 하게 해주었고 궁정에 수시로 드나들며 황후를 비롯한 궁정의 여인들에게 강의를 하게 함. 그래서 훌륭한 어르신이라는 의미의 '대고大家'('고'는 '고姑'를 뜻함)라 불렸음. 반소가 『한서』를 마무리했을 때 당대의 유명한 학자 마융馬融이 동관의 밖에 엎드려 반소의 가르침을 청하였으며, 조정에서는 마융의 형 마속에게 반소의 뒤를 이어 「천문지」를 써서 『한서』를 완성하게 하였음.

2001년 3월, 상해곤극단上海昆劇團의 곤곡昆曲 <반소>
2008년 7월, 북경올림픽을 기념하여 북경의 매란방대극원梅蘭芳大劇院에서 공연
(극본-뤄화이전[羅懷臻], 연출자 양샤오칭[楊小青]
반소-장징셴[張靜嫻], 마속馬續-차이정런[蔡正仁])
곤곡 <반소>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인 감동적 작품.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적막함,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은 부귀영화.

원래 학문이란 부귀영화를 우습게 여겨야 하는 것,
진실한 문장은 외로운 등불 아래에서 나오는 것.“

딸들에게 주는 글, 『여계』

40세 때 반소는 딸들에게 주는 글인 『여계女戒』를 씀.

“아들이야 스스로 잘 살아갈 터이니 걱정할 바 없으나 이제 막 혼인할 나이가 된 딸들이 걱정이라.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부녀자의 도리를 잘 익히게 해야 남의 집에 시집가서 올바른 행동을 할 터, 그래야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지금 내가 병이 깊어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너희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걱정이 되는구나. 내가 『여계』 7편을 썼으니 각자 한번 씩 베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너희들의 몸을 바로 하는데 좋은 점이 있길 바란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열심히 힘쓰도록 하여라.”

-여자는 낮고 유약한 존재여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처해야 한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밤낮없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끝내야 한다, 신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의 도리이다, 덕과 말씨, 용모와 솜씨를 갖추어야 한다, 용모를 단정히 하여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따라야 한다, 시동생이나 시누이와 사이좋게 지내야한다.

“예禮에는 남편이 다시 장가들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부인은 두 번 혼인할 수 있다는 문장은 없다”

“예에는 여덟 살이 되면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열다섯이면 배움이 이른다고 했다. 유독 여자에게는 이것을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인가?”

“남편이 지혜롭지 못하면 부인을 통솔할 수 없고, 부인이 지혜롭지 못하면 남편을 섬길 수 없다. 남편이 부인을 통솔하지 못하면 위엄과 법도가 사라지고, 부인이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 의리가 땅에 떨어져 없어지게 된다. 무릇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2. 삭막한 바람 속에서 부르는 가슴 아픈 노래- 채문희

<문희귀한도文姬歸漢圖>

채문희蔡文姬가 흉노 땅에서 한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홉 점 쯤 되는데 남송 화가 진거중陳居中의 <문희귀한도>와 금나라 장우張瑀의 <문희귀한도>가 가장 유명함.

조조가 오랜 동안 수소문해서 찾아내었으며 많은 예물을 흉노 왕에게 주고 한나라로 데려온 여인이 바로 채옹蔡邕(132-192)의 딸 채문희. 흉노 땅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흉노의 좌현왕左賢王과

혼인, 두 아이를 낳은 채문희가 한나라 사신을 따라 떠나기 직전의 이별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진거중의 <문희귀한도>.

문희는 채옹의 딸. 채옹은 한나라 후기의 뛰어난 학자. 글씨도 아주 잘 써서 '희평석경熹平石經'으로 유명하고, 음악에도 정통하여 땔감으로 불탈 뻔했던 오동나무로 '초미금焦尾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짐. 관동연합군과 동탁, 채옹의 한숨과 그의 죽음. 전쟁의 와중에 채문희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됨.

"말 앞쪽에는 남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매달고, 말 위에는 강제로 끌고 가는 여인들을 태웠다",

“낮에는 울면서 길을 가고 밤에는 슬픔을 참으면서 앉아있는”,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고, 살려고 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나날이 채문희의 「비분시悲憤詩」와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에 묘사되어 있음.
(듣기:http://www.1ting.com/player/c7/player_16165.html)

“머나먼 변방지역은 중원과 달라, 사람과 습속에 예의와 도리가 없구나
그곳엔 눈과 서리 뿐, 봄여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어 오는구나
거친 바람이 내 옷을 날리게 하고, 강한 바람이 귓전을 스친다
계절이 바뀔 땐 부모가 생각나고, 가슴속에 한없는 슬픔 뿐...”

장우의 <문희귀한도>에서 흉노 땅 여인의 복장을 한 문희가 아이들을 남겨두고 말을 타고 가고 있음. 그림에는 모두 12명이 등장하는데, 깃발을 든 흉노병사가 앞장서고, 다른 병사 둘이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고 있으며 문희의 뒤에서도 역시 관원들이 따르고 있다. 흉노 땅의 거친 바람이 그림 속에서 마구 불어오는 듯한 느낌.

희곡 『채문희』와 궈모로[郭沫若]-채문희와 조조, 궈모로와 마오쩌둥
1958년 중국 사회과학원 원장, 1959년 중국 정협政協 부주석을 지낸 궈모로에게 있어서 『채문희』는 어떤 의미?-
역사극은 ‘이데올로기를 세워나가는 거대 서사’

“내가 『채문희』를 쓴 주요 목적은 조조를 재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조조는 우리 민족과 문화의 발전에 분명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봉건시대에 그는 대단한 역사인물이었는데, 송나라 이후로 정통관의 속박으로 인해 그에 대해 너무 불공평한 평가를 해왔다. 특히 『삼국연의』와 공연예술에서 묘사된 조조는 간신의 전형이 되어 하얀 얼굴을 한 나쁜 놈으로 등장하였다. 그래서 세 살 박이 아이까지도 조조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조조에 대해 우리는 이제 공평한 평가를 해야만 한다.... 나는 조조의 공적을 인정한다. 그는 한나라 말기의 붕괴된 사회를 안정시켰고 황하 유역의 생산 질서를 회복시키고 발전시켰으며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이 정착하여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채문희』「서序」)

3. ‘지음(知音)’을 그리워한 시인-설도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무어라 맘과 맘을 맺지 못하고,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가곡 <동심초>)

「동심초」의 노랫말- 당나라 여성 설도薛濤의 시를 우리나라 시인 김억이 우리말로 옮긴 것.
사천성 성도成都 금강錦江 가에 만들어진 망강루望江樓공원의 망강루
-설도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 건물은 '숭려각崇麗閣'이라고도 함. 설도가 좋아했다는 대나무가 곳곳에 눈에 띠는 그곳에 '설도기념관'이 있음. 설도가 살았다는 완화계浣花溪 자리에 만들어진 기념관. 설도가 이곳에서 물을 길어 연꽃과 맨드라미 꽃잎을 섞어 빛깔 고운 종이, 설도전薛濤箋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음.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났던 설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생활이 어려웠음. 악적樂籍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때, 서천西川절도사로 부임해온 위고韋皐가 설도의 재주를 아껴 후원자 역할. 35세 무렵까지 설도는 위고의 후원 하에 많은 시인들과 교류. 위고가 죽은 뒤, 무원형武元衡이 서천절도사로 오면서 설도의 재주를 높이 사 조정에 '교서校書'의 벼슬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음. 그것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이후 설도는 계속해서 '교서'로 불리게 됨. 그러던 중 40세의 설도, 열 살 연하의 원진과 사랑에 빠지게 됨.(원진은 백거이와의 평생 교유로도 유명한 인물)
원나라 때 나온 희곡 『서상기西廂記』, 『서상기』의 저본이 되는 작품이 원진이 지은 당나라 때의 소설인 「앵앵전鶯鶯傳」 『서상기』에 등장하는 남자주인공 장생張生이 바로 『앵앵전』의 장생이고, 그 모델이 바로 원진.
동천東川으로 부임해온 그를 재주梓州에서 만난 후 설도는 사랑에 빠지게 됨.
성도 땅 완화계는 당시의 문학 살롱. 원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 것은 2년 남짓, 원진의 아내 위총이 죽으면서 그는 다시 처와 첩을 들이고, 둘의 관계도 멀어지게 됨. 그 아픈 마음은 설도 작품 중의 백미라고 일컬어지는 「봄날의 기다림[春望]」이라는 가슴 저린 시로 남게 됨.

꽃 피어도 함께 볼 사람 없고 花開不同賞
꽃 져도 함께 슬퍼할 사람 없다 花落不同悲
그리움 두었던 곳 어디일까 欲問相思處
꽃은 피고, 꽃은 지는데 花開花落時(「봄날의 기다림」4수 중 제1수)

-> 가곡 「동심초」의 원본은 설도의 「봄날의 기다림」 제3수.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風花日將老
만날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네 佳期猶渺渺
무어라 맘과 맘을 맺지 못하고 不結同心人
한갓되이 풀잎만 맺으려는고 空結同心草

설도의 시에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無雌聲)'라고 말한 사람도 있음. 죽기 일 년 전에 설도는 「주변루籌邊樓」에서 "높은 곳에 우뚝 솟아 사면팔방 트인 모습, 그 장대함이 서천 40주를 압도하네. 장수들은 강족의 말을 탐하지 말라, 가장 높은 곳에서 변방을 바라보라(平臨雲鳥八窓秋, 壯壓西川四十州. 諸將莫貪羌族馬, 最高層處見邊頭)."라고 썼는데 종성鍾惺은 이를 두고 "홍도(설도)를 어찌 단순히 여자라 하겠는가, 그야말로 일대의 영웅이다(洪度豈直女子哉, 固一代之雄也)"라고 평했음.

4. 사람이 국화보다 더 말랐구나-이청조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표돌천趵突泉의 이청조李淸照기념관
산문으로 이름났던 이격비의 딸 이청조. 재상으로 유명했던 조정지의 아들 조명성.
『금석록金石錄』의 저자 조명성趙明誠과 이청조의 혼인(18세).
행복한 젊은 날과 불우한 만년.
금나라 여진족과의 전쟁으로 강남으로 피난 와서 저쟝[浙江]성 진화[金華]에서 세상 떠남.
「성성만」을 비롯한 작품들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줌.

남편이 진사과에 합격하여 외지로 파견되어 잠시 이별했을 때, 그 기다림을 노래한 것이 바로 「취화음」.

「취화음醉花陰」

황혼의 저녁이면 동쪽 대울타리 아래서 술을 음미하고
국화 꺾어 소매 속에 넣으니, 맑은 향 은은히 전해 오네
임 생각 타는 심정 잊혀진단 말 마시오(莫道不銷魂),
구슬발을 거두니 가을바람 부는데(簾捲西風),
사람이 국화보다 더 말랐구나(人比黃花瘦)

이청조 42세 되는 해(1125)에 금나라와 전쟁, 이청조는 아름답던 날들을 뒤로 하고 강남을 떠돌게 됨. 그 와중에 남편도 죽고 처량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 저쟝성 진화에서 노년을 보내며 지은 「성성만(聲聲慢)」은 불후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음.

「성성만(聲聲慢)」

찾고 찾고 또 찾지만(尋尋覓覓 xúnxún mìmì)

냉랭함과 스산함뿐(冷冷清清 leˇngleˇng qīngqīng)

처량하고 비참하고 외로워라(凄凄慘慘戚戚 qīqī caˇncaˇn qīqī)

잠깐 따뜻하다 금새 추워지니/

몸 편히 보전키 어렵구나

두 잔 석 잔 맑은 술 마시지만/

저녁의 찬바람 막아주지 못하고

기러기는 날아가네/

이 내 마음 너무도 아프지만/

그래도 옛 시절 서로 알았었지//

온 땅에 국화꽃잎 쌓이더니/

너무도 초췌히 변했구나

이제 어느 누가 너를 딸까/

창가에 지켜 앉아

홀로 어이 저문 날을 보낼까/

오동잎에 가랑비 내리더니(梧桐更兼細雨)/

황혼이 되어도(到黃昏)

후두둑 후두둑(點點滴滴)/

이때라(這次第)

근심이란 한 글자로 어찌 감당하리오(怎一個愁字了得)

http://so.56.com/video/%E6%9D%8E%E6%B8%85%E7%85%A7%E5%A3%B0%E5%A3%B0%E6%85%A2/?page=1